

공연 Review

제 2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시대·계층 초월한 '모두의 마당'

도심 한복판서 관객·출연진과 함께 뜨거운 교감 현대적 각색 마당극·즉흥 춤사위 등 수준급 무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신명나는 마당극 한판이 어우러졌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하늘마당에서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협회)의 제 2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1988년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28회를 맞는 행사는 민중성과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마당극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들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27회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펼쳐진 이날의 행사는 '모두의 마당'이라는 주제로 전국 각 지역의 마당극 단체들이 참여해 광주 도심 한복판을 구수한 정취로 물들였다.

전통예술단 굴림의 길놀이로 하늘마당을 수놓은 29일의 개막식은 관객들과 하나된 전통 놀음의 한바탕 시작을 알렸다. 뒤이은 박선옥 똥춤무용단의 춤사위는 연결과 준비동작인 '똥춤'에서 따온 이들 무용단의 이름처럼, 전통의 맥을 이어 현대의 창작에 버무린 무대를 선보였다.

다채로운 극단들이 참여했던 양일의 공연 중 오사카 극단 '달오름'은 1948년 일본 현지에서 일어났던 조선인 학교 폐쇄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한신교육투쟁'을 다룬 '4.24의 바람'을 29일 무대에 올렸다.

재일 조선인들이 1948년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벌인 한신교육투쟁은, 전쟁 전 한국 신민화로 인해 우리말을 잃어가던 재일 조선인 자녀들의 교육권 침탈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당시 재일 조선인들의 교육권을 말살하려는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폐쇄명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투쟁 끝에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인정, 조선인 학교를 사립학교로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현재 민족 교육투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전의 마당극단 '좋다'는 극단 레퍼토리 '경로당 퐁팅사건'을 30일 무대에 올렸다. 어느날 경로당으로 날아온 수백만원의 전화요금정수서에 경악을 금치 못한 경로당 일원은 전화내역을 확인하고, 그것이 이른



바 '퐁팅' 때문임을 알아차린다.

누구의 소행인지 벌이는 한바탕 소동 아래 노년의 등장인물들이 겪는 일상이 어우러진 작품은 소외된 노년의 일상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탓에 겪는 아픔 등을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가슴저리게 표현했다.

충북의 월드전통프로젝트그룹은 'Together Further' 무대를 올리며 세계 전통 음악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몽골·베트남, 코트디부아르·볼리비아 등 제3세계의 민요와 전통음악을 컬래버레이션한 공연은 각 나라의 전통 악기 소리를 통한 어울림으로 색다른 느낌을 관객들에 선사했다. 동요 섬집아가와 심포니아 등을 합주했던 무대는 관객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협회장 윤만식씨는 "선보이는 마당극들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뜻깊다"며 "현재 이어져오고 있는 지역간 마당극단 네트워크 등을 통해 마당극이 민족극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영주기자 dak1482@gmail.com



무등 정취 느끼며 벌이는 올림 한마당

2018무등올림축제 學·戰·休·場·美 5개 주제로 내일 개막

무등의 정기와 가장 가까운 올림골과 무등산에서 지역민·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전통문화대잔치 '2018 무등올림축제'가 펼쳐진다.

오는 3일 개막해 28일까지 전통문화관을 비롯해 무등산 일대에서 총 26일간 펼쳐지는 축제는 배움의 學(학), 경연의 戰(전), 휴식의 休(휴), 화합의 場(장), 전통의 美(미)의 5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의 자랑인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기·예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무형문화재의 날'을 지정해 광주시 15개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올림골 일대 미술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국제대 등 무등산 아래의 문화기관과 학원초등학교, 광주 독립채방, 전통상가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공동체와 어우러지는 축제를 구현했다.

5가지 소주제를 가진 이번 무등올림축제는 소주제 아래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현장에서 진행된다.

'배움의 學'은 15가지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무형문화재의 날로,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강연과 시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으로 꾸며진다.

무형문화재의 날은 광주시 지정 문화재 보유자가 무등올림 축제의 하루를 각각 맡아 명인들의 예술적·기술적 기량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자리다. 4일 가야금병창 '이영애의 날'을 시작으로 가야금병창, 판소리 춘향가,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의 공연과 강연에 이어 탕화그리기, 붓, 단소, 장구, 소북 만들기 시연하고 체험해본다.

전통문화관 이외에도 국악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미술관, 차생원에 준비



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국악미술관의 한지 '등' 만들기과 자작시 캘리그래피 프로그램, 재활용품을 이용해 꽃과 화분을 만들어보는 무등현대미술관의 에코플라워 팻, 오방색 한지로 캔버스를 꾸며보는 우재길 미술관의 행복만들기 등이 각 기관에서

사전접수나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이외 다양한 축제관련 정보는 광주전통문화관 홈페이지 및 무등올림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무등사업팀 (062-232-1599, 2153).

이영주기자 dak1482@gmail.com



"훈이오빠와 폴리투어 즐겨요"

(재)광주비엔날레, 11월 25일까지 매 주말 운영

"올 가을, 훈이오빠 타고 광주 도심 곳곳의 독특한 문화 건축물 광주폴리를 감상해보세요."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폴리 일대를 자전거로 둘러보는 '훈이오빠와 함께하는 광주폴리 투어'를 11월 25일까지 매 주말 운영한다.

광주폴리를 자전거로 만나는 투어 프로그램인 '훈이오빠와 함께하는 광주폴리 투어'는 광주폴리와 연계된 광주의 문화관광 브랜드로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광주폴리와 광주관광 자전거 브랜드인 '훈이오빠'를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광주폴리 자전거투어 코스 A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승차해서 광주사랑방(미디어 셀), 열린공간, 기억의 현재화, 열린장벽, 99간, 유동성 조절, 투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차한다.

코스 B는 서원문제 등에서 승차해서 광주사람들, 소통의 오두막, 아이러브스트

리트, 뷰폴리(잠만경과 정자), 광주사랑방에서 하차한다.

주말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총 4대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시간 기준 1만원이다. 2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임근중 광주폴리부장은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이색적인 광주폴리 자전거 투어까지 더해져 문화도시 광주의 문화 관광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광주폴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폴리는 쇠막해저기는 구도심을 소형 건축물인 '폴리(Folly)'로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김옥경기자 uglykid7@harmail.net

'정상'이라는 폭력



조덕진의 어떤 스케치

"이나라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몇 년전 한 강연에서의 이야기다. 스웨덴 유학중이던 강사에게 한국인들이 묻는다. 장애인들이 소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생활하다보니 일상에서 장애인을 만나기 어려운 한국인들을 눈엔 이채롭게 보인 것 같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언론 기사들이 수년전 에피소드와 질문을 불러냈다. '정상국가'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정상국가'로 발돋움 하려한다 등등.

'정상'이란 무엇인가, 새삼 이 사회의 '정상'에 대한 터무니없는 추구와 그 울타리 밖 이들에게 가하는 폭력의 문제가 떠올랐다.

'정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다.

문제는 이 사회의 '정상'은 비정상 을 전제로 하는데다 정상에 속하지 못한, 정상 밖 이들을 배제와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구분이 가족에게 지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인 엄마 아빠가 있는 경우를 '가정(정상가정)'으로,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와 사는 가정은 각각 다른 이름으로 구분한다. 한때는 후자를 '결손가정'이라고 칭했다. 이 그룹에는 외국인 결혼 가정(다문화)도 포함된다. 단 미국인 영국인 등 서구유럽 출신은 제외다.

'동남아'나 이웃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가난한 국가출신과 가정에 국한된다.

더구나 많은 경우 지원계층이다보니 자존감은커녕 자존심이 깃들 틈도 없다. 대명절에도 홀로인 '할머니'나 '엄마' 손잡고 선뜻 나들이에 나서지 못한다. 이들에게 암묵적 강제적으로 규정된 결핍과 결손이라는 구획에 움츠러들어서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의 끈공이 가장 큰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이 너무 삼척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들으면 '꼰대'라 할 만한 이야기 하나 덧붙여야겠다. 20세기 미국 최고의 지성으로 꼽혔던 고수전선택은 불행한 가정 출신에 21세기에 노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였다.

청소년시절 만난 한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아는 그녀가 됐다. '우리가 아는' 그녀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나 강제하는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며 분침에 다가갔다. 미국 지성계는 물론 대중도 그녀에 화답했고 그녀는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에 충실했다.

지난 주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미국 메사추세츠 예술대 교수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는 유순미 교수 초청전이 열렸다.

3차례 방북을 통해 4년여에 걸쳐 만난 북한에 관한 보고서 '북녘에서 온 노래'는 단연 눈길을 끌었다. 예세에 다큐멘터리는 형식의 이 작품은 감독이 개입하거나 생각을 보여주기보다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다. 유 교수의 지적처럼 '객관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게 된다.

유 교수의 이 지적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며 외부와 접촉을 통제하는 북한, 끊임없이 위대한 지도자를 칭송하며 혼연일체가 되고자하는 북한주민의 노래, 그 속에도 피어나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와 웃음소리. 수수께끼 나라 북한에 대해 묻는다. 당신은 누구냐고, 누굴까라고.

당최 정상이란 무엇인가. 제도교육이 존중해 마지 않는 그리스 로마시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과 우주를 논하던 그 시절에 동성애 연애는 하나의 문화(정상)였다. 21세기에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이 자유연애를 하면 가족이 나서 살인(명예살인)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화체육부장 겸 아트플러스 편집장

골목 구석구석 담긴 광주 옛 추억

예술공간 집, 오는 18일까지 정선휘·박일구 릴레이전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광주의 과거 모습을 담은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예술공간 집은 '광주의 추억'을 주제로 정선휘 작가의 '축적된 시간, 남겨진 풍경'전을 오는 9일까지, 박일구 작가의 'The Scene, 사라지고도 남겨진' 전시를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잇따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공간 집이 위치한 장소적 특수성에 출발했다.

광주 동구는 광주의 원도심으로 한때 중심가였던 충장로와 금남로, 인접한 전남이고와 대인시장, 중앙초교, 전남도청, 광주 시청 등 도심의 중심가였다. 도심 재개발 등으로 변화가 분산 확장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도심의 풍경도 급속히 변화했다.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새로이 변화가 자리매김해가는 동명동거리로 외형은 몰라도 달라졌지만 골목골목 구석구석 곳에는 옛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다. 특히 이 전시는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충장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맞춰 진행되기에 그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된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999년부터 2001년 그려진 그림들로, 장동, 동명동, 계림동, 농성다리 등의 모습을 담았다. 특히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 위를 걸어가는 두 아이의 모습에서 파스함이 가득 스민 '학교길', 경전선이 없어지고 난 뒤 폐선부지 위 녹슨 철로 옆으로 울긋불긋 피어난 꽃들, 초록의 풀터미, 새벽녘 도시를 가로지르는 마지막 열차,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그저 특별한 것 없는 삶의 풍경들을 그렸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전시되지 않았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 처음 카메라를 집어든 때 촬영된 것으로, 예술에 대한 열망을 한껏 품은 청춘의 시절 작가의 시선을 그대로 담았다.

예술공간 '집' 문희영 관장은 "빠르게 바뀌어가는 삶의 건너편에서 조금은 느릿느릿한 한가롭게, 작품 안에 담긴 삶의 풍경이 건네는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uglykid7@harmail.net



정선휘 작 '마지막열차'